



위성미가 지난 15일 열린 PGA 존 디어클래식 2라운드에서 9번홀까지 경기를 마친 뒤 기권, 들것에 실려 나가고 있다. /AP-연합뉴스

위성미 기권

프로 15년차의 무명 존 샌든(호주)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존 디어클래식에서 생애 첫 승리의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5번째 PGA 투어 대회에 나선 '천만달러의 소녀' 위성미(17·나이키골프)는 2라운드 도중 일사병 증세로 탈진해 기권했다. 샌든은 16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실비스의 디어런TPC(과 71·6천762야드)에서 열린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7개를 뽑아내 총합계 16언더파 197타로 3타차 선두에 나섰다. 히스 슬로핀과 패트릭 시한(이상 미국)이 함께 13언더파 200타로 공동 2위를 달렸다.

PGA 존디어클래식 2R 경기중 복통 호소...포기

위성미는 15일 2라운드를 치르다 9번홀을 마친 뒤 아버지 위병욱씨, 어머니 서현경씨에게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고 경기를 포기했다. 대회장에 마련된 의료센터에서 약 30분간 치료를 받은 위성미는 링거 주사를 맞으면서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위성미의 매니저인 로스 벌린은 "복통과 어지러움, 그리고 호흡곤란 등 복합적인 증세를 보였다"면서 "병원 진단 결과 일사병 증세로 탈진한 것으로 나왔지만 안정을 취한 뒤 호전됐다"고 밝혔다. 이날 31도에 이르는 높은 기온과 피아열, 그리고 습한 날씨 속에 경기에 나선 위성미는 플레이 도중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더구나 위성미가 경기를 시작한 시간은 가장 기온도 높을때다 지열(地熱)이 올라와 체감 온도는 더 높아지는 현지 시간 오후 2시경. 가슴을 부여잡고 힘겹게 페어웨이를 걸었고 자주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8번홀에서 이날 유일한 버디를 잡아낸 위성미는 힘없이 9번홀로 이동했지만 캐디백에 걸터앉아 머리를 흔들며 괴로워했고 결국 9번홀을 더블보기로 마친 뒤 기권하고 말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미현 버디행진...“시즌 2승 보인다”

김미현이 16일 미국 오하이오주 하일랜드메도우 골프장에서 열린 LPGA 제이미파 오웬스 코닝 클래식 3라운드 2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LPGA 코닝클래식 3R

김미현(29·KTF)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제이미 파 오웬스 코닝클래식 공동 선두를 유지했고, 박세리(29·CJ)는 1타차로 선두권을 추격했다. 김미현은 16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니아의 하일랜드메도우스골프장(과 71·6천408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3라운드에서 17번홀까지 4타를 줄여 합계 12언더파로 나탈리 걸비스, 라일리 랭킨(이상 미국)과 함께 선두를 달렸다. 일몰로 경기를 마치지 못한 가운데 마지

12언더파 공동 선두...박세리는 1타차 추격

막 홀을 남겨둔 김미현은 4번홀까지 보기만 3개를 범하면서 주춤했으나 이후 17번홀까지 7개의 버디를 속아내는 뒷심을 발휘했다. 15번홀까지 경기를 마친 박세리는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속아내는 깔끔한 플레이를 펼쳤다. 합계 11언더파로 폴라 크리머(미국)과 공동 4위를 형성, 선두그룹을 1타차로 쫓고 있는 박세리는 마지막 날 김미현 등과 시즌 2승을 다투게 됐다.

특히 지금까지 이 대회를 4차례나 제패, 자신의 '뒷발'임을 과시했던 박세리는 올해 대회에서 우승하면 동일 대회 최다 우승 기록과 타이틀을 이룬다. 동일 대회 5회 우승 기록은 미즈노클래식과 삼성월드챔피언십을 각각 5차례 우승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과 시아일랜드오픈을 5차례 제패한 미키 타이트(미국)가 보유하고 있다. 14번홀까지 버디만 5개를 뽑아낸 조령아(22)가 합계 10언더파로 6위에 포진해 뒤를 쫓았고, 16번홀까지 치른 임성아(22·농협한삼인)는 합계 9언더파로 7위를 달렸다.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은 15번홀까지 합계 8언더파의 성적을 냈다. 이지영(21·하이마트)과 정일미(33·기가골프)가 각각 13번홀과 12번홀까지 치른 가운데 나란히 합계 6언더파로 공동 11위에 올라 10 진입을 노렸다. 한희원(28·힐라코리아)은 9번홀까지 버디 2개를 뽑아내 합계 2언더파로 송아리(20), 나리(20·이상 하이마트) 자매와 공동 34위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SK서 방출, KIA서 영입... ‘늦깎이 이적생’ 조경환



“아픈만큼 성숙 실력으로 보답”

“바다에 빠진 날 건져줬는데 보은(報恩) 해야죠” ‘늦깎이 이적생’ 조경환(34·KIA)이 ‘제2의 고향’ 광주에서 마지막 투혼을 불태우고 있다. 지난달 26일 SK에서 웨이버 공시(방출)된 조경환은 지난 5일 KIA에 새 동지를 둔 뒤 16일 현재 최근 5경기에서 15타수 5안타(1홈런) 2타점의 불꽃타를 휘두르고 있다. 지난 13일 광주 LG전에서는 1-0으로 살얼음 승부를 걸던 5회말 상대 선발 이승호로부터 좌완 솔로포를 터뜨리며 팀 승리의 일등공신이 되기도 했다. 조경환이 홈런을 때린 것은 SK 시절이던 지난해 4월28일 광주 KIA전 이후 처음이었다. KIA타선도 9번타자 조경환의 맹타에 힘입어 균형각각을 찾고 있는 모습이다. KIA는 조경환의 합류로 그동안 허약했던 하위타선의 득점력이 높아지면서 최근 3승 1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최근 5경기서 15타수 5안타 제2 전성기 꿈꾸며 투혼 발휘

한국야구위원회(KBO)규정상 웨이버 공시 이후 7일동안 다른 7개 구단에서 영입 신청을 하게되는데 여러팀이 동시에 나설 경우를 시즌 신청 당일 성적기준으로 최하위 팀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영원히 방출이다. 선수생활이 끝나는 것이다. 다행히도 이종범의 부진과 심재학의 부상으로 고참 외야수가 필요했던 KIA가 영입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조경환은 또 다시 의외의 복병을 만나게 된다. 프로야구 팀 규정상 팀당 선수는 63명까지 보유할 수 있는데 당시 KIA는 이 한도를 꽉 채우고 있었던 것. KIA는 부랴부랴 장일현을 방출하고 조경환의 자리를 마련했다. 조경환은 “바다에 빠진 심정이었다”는 말로 당시의 절망스런 마음을 전했다. 그에게 광주생활은 처음이지만 낯설거나 어색하지는 않다. 아내 김정미(32)씨의 고향이 광주고, 아직도 장인, 장모 모두 광주 송정리에 살고 있기 때문. 경기도 부천 집을 정리한 조경환은 오는 31일 광주로 이사할 계획도 세워졌다. “남편 내조에 충실하고 싶다”는 아내 김씨의 간절한 바람 때문이다. 조경환은 “야구를 다시 할 수 있게 돼 너무 기쁘고 한 타석, 한 타석이 소중할 뿐이다. 야구를 다시 배운다는 생각으로 선발이든 대타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2의 부활’을 다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메이저리그 소식

찬호 7승 실패

5.10이닝 7실점...5패

박찬호(33·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후반기 첫 경기에서 무더기 점수를 내주고 패전의 멍에를 썼다. 박찬호는 16일(한국시간) 샌디에이고 팻코 파크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애플랜타 브레이브스와 홈경기에 선발투수로 나와 5.10이닝 동안 홈런 2발을 포함해 안타 8개, 볼넷 4개, 몸에 맞는 볼 1개를 내주고 7실점(5자책)했다. 박찬호는 0-5로 뒤진 6회 1사 1, 2루에서 마운드를 내려갔으며 구원 등판한 브라이언 시코스키가 치퍼 존스에게 2루타, 브라이언 매켄에게 3점 홈런을 두들겨 맞아 실점이 7점으로 늘어났다. 시즌 5패(6승)를 안았고 방어율도 종전 4.29에서 4.49로 올랐다. 이날 박찬호는 잘 던지다가 홈런을 맞고 갑자기 무너졌다. 박찬호는 0-0으로 맞선 4회초 1사 이후 앤드루 존스에게 가운데 강속구를 뿌렸다가 좌중간 펜스를 넘어 관중석 상단에 꽂히는 138m짜리 솔로포를 맞으며 첫 실점했다. 5회에도 선두타자 스톡 토먼에게 초구에 중월 홈런을 맞은 박찬호는 1사 만루서 앤드루 존스에게 왼쪽 담을 직접 맞는 2루타를 맞고 2점을 더 내렸다. 박찬호는 6회에도 1사 1, 2루서 2루 약속수로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여 1점을 또 내주고 강판됐다. 마운드를 이어받은 시코스키마저 난조를 보여 박찬호의 실점은 모두 7점으로 늘었다. 샌디에이고는 8회 아드리안 곤살레스가 3점 홈런을 날렸으나 3-11로 대패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세이브 없는 날’ 28년만에 진기록

미국프로야구 28년만에 세이브가 단 한개도 발생하지 않은 하루를 보냈다. 메이저리그는 16일(한국시간)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리그를 합쳐 30개 팀이 15경기를 펼쳤으나 팀 승리를 지닌 단 한 건의 세이브도 나오지 않았다. 스포츠 통계전문회사인 엘리어스 스포츠뷰로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전체 팀이 경기를 가진 날 세이브가 나오지 않은 것은 26개팀이 14게임(더블헤더 포함)을 치른 1978년 9월15일후 처음이다.

보스턴 레드삭스 오티스 올 32호 홈런...단독 선두

‘빅파워’ 데이비드 오티스(보스턴 레드삭스)가 혼전을 이루고 있는 메이저리그 홈런 다투에서 선두를 다시 지켰다. 오티스는 16일(한국시간) 보스턴 펜웨이파크에서 벌어진 오를랜드 에슬랙틱스와 홈경기에서 8회 스카트 소어백으로부터 우월 솔로홈런을 뽑았다. 오티스는 이로써 시즌 32호 홈런을 기록, 짐 토미(시카고 화이트삭스)와 앨버트 푸홀스(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상 31홈런)를 따돌리고 메이저리그 전체 선두를 고수했다. 토미는 이날 뉴욕 양키스와 원정 경기에서 5회 마이크 무시나로부터 투런홈런을 날려 오티스에 이어 아메리칸리그 홈런 2위를 유지했다.